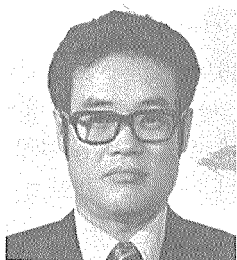


# 우리 말 우리 글의 정보산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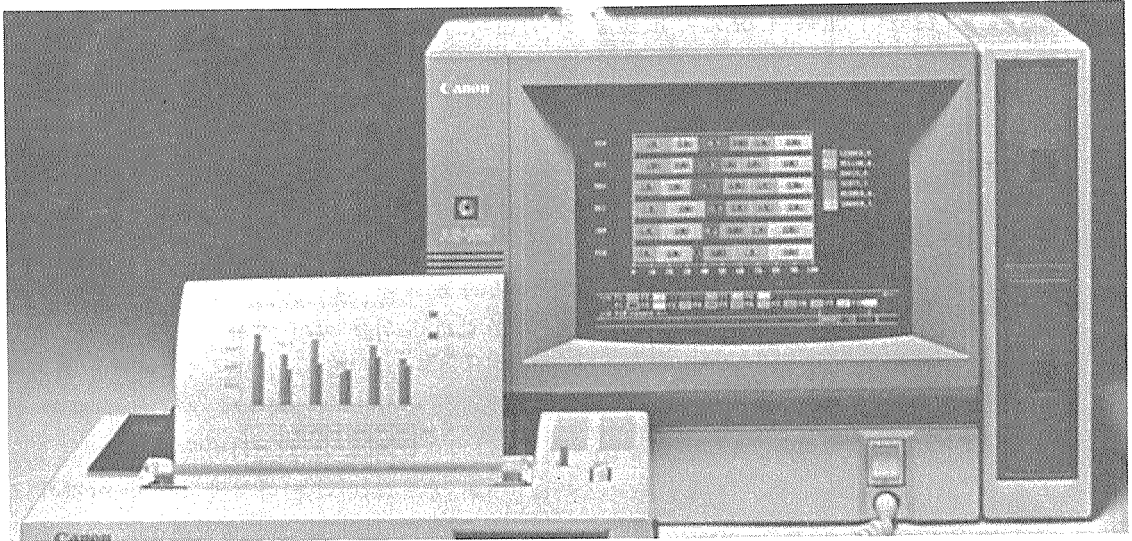
柳 京 熙  
韓國메이타通信(株) 研究委員

우리의 정보산업을  
정착, 육성, 창달하기 위하여  
표준화에 대한 국가적 제도화의  
조기 달성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망의 구축, 특별 관심자 그룹의  
결성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가지의 수단으로서  
추진하여야 한다.

## 1. 머리말

필자는 요즘 「정보」란 단어의 정의때문에 새삼스럽게 토의를 많이 하게 되었다. 하기가 한 동안 「정보」가 「스파이」라는 비도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때문에 곤란에 처하곤 한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움직임」이라는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생활정보」, 「증권정보」, 「부동산정보」, 「상품정보」등과 같이 이제는 정보란 말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려서 과거에 한 동안 잘못 활용한 시대에만 집착해서. 이의 사용을 꺼릴 필요가 있을까? 원래 말이란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마련이며 이미 있던 말도 그 의미가 날로 달라지는게 상례인데 너무나 고전적인 해석에도 오용된 해석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의 제정 보급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자각할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중국은 어떻게 하며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를 자세히 알고 우리나라대로 새로운 말을 제정하는 과정을 정립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표준말로 제정되는 말」들이 불과 몇개되지 못해서 외국의 신기술이나 신지식을 도입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써야될 외래어를 쓴다고 무슨 사대주의자처럼 매도하여 버리는 「국어순화운동」도 마땅치가 않으며 토씨만 빼고 모두 영어를 쓰는 경우도 마땅치가 않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보산업」을 한담시고 그리고 PC의 수출국으로 세계 제 1위라고 자부하는 형상도 과히 보기 좋은 일은 못된다. 역설적이지만 「왜, 외국사람의 정보처리에만 기여하고 우리의 정보처리는 못하고... 이게 됩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컴퓨터 산업과 정보산업과의 차이일 것이다. 컴퓨터 산업이라면 우선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수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보산업은 언어와 문자를 바탕으로하는 산업인데,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상적인 정보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

다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정보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언어나 문자로 된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쓰고 읽고 보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채산성이 뒤진다고 해서 지금처럼 완전히 외면하여 버리는 현상이 안타깝기만 하다.

## 2. 정보처리의 표준화

지금까지 정부나 각계각층에서 「정보처리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많이 기울어져 왔지만 이것이 정말로 한에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표준화」 자체가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아예 단정을 내려버리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의 대부분의 책임이 산업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솔선하여 참여하려는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작년 3월 ISO TC97 SC2 총회(베를린)에 참가한 경험의 단면을 소개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대표단이 모두가 7~8명이나 되며 그중 정부대표는 1인 뿐이었으며 나머지 단원들은 모두가 업체의 대표들이었다. 우연히도 일본의 대표단이 미국 컴퓨터 메이커의 일본지사직원이 끼어있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때는 메이커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일본을 대

표하는 투표행사였다. 이것이 필자에게는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지사인데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었을때 과연 그렇게 할까? 아직도 그런 여건마저 조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년 6월 ISO TC46(도큐멘테이션) 총회가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필자가 여기에 참가하여 특히 4개 소분과회의에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정보검색방법의 국제표준화」이며, 둘째는 「단행본의 관리번호, ISBN」이며 세째는 「축차간행물의 국제관리번호, ISSN」이며, 네째는 「한글의 라틴문자전자법」이며 다섯째는 「한국 문자의 문자세트의 확정」 문제이다. 그런데 이 5번째 문제가 확정됨과 동시에 ISO TC97 SC2에서 「코드화」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의 사정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를 어디에서 누가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은 한두번 외치다가 그만둘 일이 아니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 아직도 관련부처끼리 소관문제로 왈가왈부하여야 하는 처지라면 이 답답한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정보산업에 관련된 표준화 노력이 다른 분야에도 대단히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를 바탕으로 표준화해 나가면서 컴퓨터 산업과 관련 소프

트웨어 산업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어문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적인 정보산업」을 키워 나갈 수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의 정보산업과 하드웨어 산업은 그야말로 「수출」에 온 가치를 모두 집중시키는 것으로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에의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깝기 짝이 없다.

### 3. 국어의 표준화없이 정보산업 안 된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우리의 언어와 문자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산업이라야 할 것인데 우리의 언어나 문자가 제대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정보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신문사마다 외래어 표기법이 다르고 국어 문법의 띄어쓰기를 제대로 지키는 신문이 하나도 없다. 더우기 정부부처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다르며 지명과 인명의 표기에 관한 문제도 정말로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글자의 총수가 몇자이며 써야 할 글자를 누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있게 답변을 하는 정부부처가 없다. 이러한 표준화가 가장 시급한 업계가 이른바 「정보산업계」 이면서 관심이나 갖고 있는지 무척 의심스럽다.

우리의 국어생활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과학적이었다. 바로 이러한 비과학적인 국어 때문에 국어정보의 처리가 바탕이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이 기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글전문론과 한자혼용론과의 수십년간에 걸친 평행선이 우리의 정보산업을 너무나 지연시켰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교육기관에서의 국어교육과 실제생활에서의 국어의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 말과 글의 연구없이 우리의 진정한 정보산업의 육성은 결코 기대될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국가의 재정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업계에서의 연구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게 아닌

가? 새로 개정된 KS-5601만 해도 그렇다. 한글 2,350자와 한자 4,888자의 선정과정이 과연 정보처리 분야에서 했어야 옳았던 일인지 아닌지 지금도 의심스러우나 결국은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글자의 수가 모자란다고 사방에서 때늦게 요청되어 왔지만 어느 한 곳에서도 과학적으로 쓸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는 곳은 불행히도 한 곳도 없었다.

우리의 국어순화운동이 외래어를 배격하는 운동이 되어서 기술용어의 도입과 보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외래어가 완전히 우리의 관용어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마구잡이로 쓰는 경향도 정말로 꼴불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신조어, 신기술의 용어 개발(번역, 우리말화)을 위해 누가 애를 쓰고 있는지? 각학회에서 신학술 용어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학회마다 다르고 보급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학술·기술 용어」를 제정 공포해서 국민들이 쉽게 익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컴퓨터를 「전뇌」라고 쓰고 있고 TV를 「전시」라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미 중국인들에게는 일반화된 용어들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도 TV의 우리말의 표준말을 모른다. 한번은 표현가능한 모든 걸 썰 모아 보았는데 무려 12개나 되었으며 어느 것을 표준어로 삼아야 할지 몰랐다. 우리집에서 6명의 식구가 투표로 정하여 보았는데 결국은 「테레비」가 아닌 「텔레비」로 낙착지워버렸다. 이것은 순화운동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필자가 만난 「보통사람」들 20여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명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모두가 「메이커 있는」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아마도 독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말들은 거의 「활자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기술자들이 전문용어를 마치 외국인의 말로 알아듣고 완전히 「정보차단」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4. 정보문화의 정착

요즘, 문명의 이기가 완전히 생활화된 것을 일컬어서 문화란 말이 붙는게 유행이다시피 되어 있다. 자동차문화, 전화문화, 컴퓨터문화니 하는 용어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문화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시작하여 껍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문화가 우리 말과 글과 그림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라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국문화의 도입도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정보문화는 컴퓨터와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뉴미디어에 우리의 정보를 담고 보내고 토론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뉴미디어 가운데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운동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의 농민을 위한 「풀뿌리」(그라스루트)운동이 그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지역사회발전이라는 운동의 대명사가 되다시피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웃나라 일본이 아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BBS운동인데 이것이 지역정보망으로 각지역마다 구축되고 있다. 이미 100개에 육박하는 망이 만들어져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망으로서 「COARA」를 들고 있으나 이것은 오이라현(도)이 지원하는 관민합작의 망인데 회원들은 지원제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전자회의, 채팅, 생활정보 등으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운동이다. 이것이 그 지역 주민운동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필자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인 컴퓨터로 원고쓰기 운동과 전자메일을 중심으로 한 편지 주고 받기의 운동과 너무나 흡사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읽고 쓰고 셈하기

우리의 문화와 교육은 「읽고 쓰고 셈하기」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뜻에서 컴퓨터를 전산기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컴퓨터란 정보처리가 주목적이지 「계산」하는 것은 부목적에 불과하다. 처음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에도 먼저 「읽고 쓰기」를 배운다. 그 다음에 셈하기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먼저 셈하기에만 치중해서 교육을시키다가 나중에 쓰거나 읽기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정보문화의 보급은 먼저 「컴퓨터로 글쓰기」「컴퓨터로 정보를 찾아서 읽기」를 먼저하고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컴퓨터로 셈하고 통계처리를 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을 특정한 사람들의 고정된 기능이라고 인식해서는 안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쓰기부터 해야 할 것이다.

## 6. 맺으면서

우리의 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보문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창달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몇가지 나열하여 보았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조속히 제도화하고 산업계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표준화의 노력과 함께,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망의 구축, 특별 관심자 그룹의 결성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한가지의 수단으로서 추진하여 봄직도 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이 직접 컴퓨터(PC)를 쓰고 모뎀을 쓰고 원고도 쓰고 공문서도 작성을하며 이러한 생활이 몸에 배도록 익숙하여야 한다.

망의 확장과 단말기의 저렴화가 이러한 수많은 잠재 이용자들을 실제이용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1가구 1컴퓨터라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세상을 하루 빨리 오게 하기 위하여...

